

총장로·금남로, 보행환경 개선 필요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전문가 공동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가' 워크숍 스토리텔링 등 융복합적 변화로 예술의 거리·동명동까지 이어지게 해야

광주지역 환경단체와 도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총장로와 금남로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광주 '중심 상업지역'으로 불리었던 총장로·금남로 일대에 스토리텔링, 조형, 미디어 등의 융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살디자이언센터에서 '금남로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하는 시민 전문가 공동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와 한국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하고 오방장애인자립센터가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금남로 주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총장로 일대를 직접 걸으며 보행환경을 분석했다.

금남로는 광주시 북구 발산교와 교차로부터 동구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교차로까지 25~40m의 폭에 총 1.895km의 길의 거리다.

총장로는 발산교와 교차로부터 동구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교차로까지 거리로 8~12m폭에 1.6km

에 달한다.

'총장로 공간 변화와 보행환경'을 주제로 이날 강의한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금남로 상가가 융복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예전부터 금남로가 갖고 있었던 광주의 중심상업이라는 상징성은 이제는 찾기 어렵게 된게 사실"이라며 "광주의 상권이나 업무의 중심이 대부분 광주 미래발전계획에 따라 옮겨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는 광주전 중심으로 광주의 발전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금남로 상업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광주전을 따라 예술의거리, 동명동까지 이어지는 가로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국내외 보행환경 개선 사례와 비교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복합개발이 트렌드다. 상업지구 내에 호텔이 들어서기도 하고 호텔이 청년을 위한 1인주택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금남로 일대 상가는 대부분 음식점과 카페로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동성로가

보행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되살아 난 것으로 예로 들었다. 동성로 거리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과 공연장, 그리고 문화 행사들이 이어져, 방문객들에게 도시 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교수는 서울 신촌·홍대·북촌 한옥 마을 거리와 일본 도쿄의 오모테산도 패션의 거리·마로노우치 거리, 중국 상하이 신티엔디 거리, 미국 포틀랜드 필거리, 독일 베를린 운터덴린덴 거리 등을 보행환경 개선의 성공사례로 들었다.

김교수는 "당장 총장로만 살펴봐도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상가들이다"라며 "금남로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권, 주거시설 도입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람을 오게 하려면 단순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단순 먹거리가 아닌 주거시설을 갖춘 다음 도심 접근권, 이동권, 상권 등의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면 금남로가 장기적으로 도심 주거지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외 '예술의 거리', '혼수의 거리', '인쇄의 거리' 등 한가지 거리로 통일시켜 관련된 상가들이 한데 모이게 하는 것도 용도에 한계를 갖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남구, '환경관리원 인력·청소차' 대폭 늘렸다

인력 27명·차량 10대...안전사고 예방·청소 행정서비스 향상

광주시 남구가 환경관리원 인력과 인프라를 확대했다.

21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최근 환경관리원 인력 27명을 증원하고, 청소 차량도 10대 증차했다.

이번 조치는 중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남구 환경관리원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에 열린 광주 5개 자치구 및 각 자치구 가정청소환경관리노동조합간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이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인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다리 절단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청소차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 3월 환경관리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남구내 청소차량의 모든 발판을 제거했다.

하지만 발판이 사라진 뒤 환경관리원의 피로도

및 업무강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용역조사 결과 남구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2~3일에 1번씩 이뤄지고 있는데, 환경관리원의 1인당 하루 평균 보행수는 발판 제거 전 1만5000보 수준에서 발판을 없애고 난 후 3~4만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에 따라 남구는 환경관리원의 업무강도 감소와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를 위해 적정 인력 및 차량 증차를 산출해 환경관리원 27명 추가 투입과 함께 청소 차량 10대를 증차했다.

이로써 남구내 환경관리원 중사자 수는 기존 110명에서 137명으로 늘었으며, 청소 차량도 33대에서 43대로 증가했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관리원의 업무강도 증가로 생활 쓰레기의 매일 수거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차량과 인력을 늘린 만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생태계 교란종, 친환경 액체 비료로 재탄생

월출산 국립공원, 미생물과 발효...증식장 복원지·농가 등에 전달

생태계 교란종이 생태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료로 재탄생한다.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제거된 생태계 교란식물로 친환경 액체비료(사진)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외래 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는 생물인 생태계 교란식물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올해 10월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해 이를 미생물과 발효시켜 만든 친환경 액체비료를 제작했다. 제작된 액체비료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환경오염 등의 우려 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제작된 액체비료를 국립공원 자생식물 증식장과 훼손 복원지, 지역 농가 등에 전달했다.

한정훈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출산국립공원은 우리 지역의 자연 생태계 보고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금남로 보행공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살피며 보행환경을 분석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북구,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나눔가치 확산

업무협약 체결...장학금·컴퓨터·생활용품 등 후원 약속

광주시 북구가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았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최근 '희망 나눔 장학금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북구는 2년에 걸쳐 ▲장학금 2400만 원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후원받게 된다.

북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굴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20명에게 후원받은 장학금을 매월 5만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360만 원 상당의 컴퓨터는 저소득층 3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2억 원 상당의 생활용품은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구체적인 후원물품 협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돌봄 이웃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정이 남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선의를 베푸신 김정안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자원 네트워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지난 2007년 국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시대를 열어보자는 염원으로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전국 지자체와 희망 나눔 장학사업, 문화체험 지원 사업, 컴퓨터 지원 사업 등을 협업 추진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나눔과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회복지 후원기관이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총장동, 독거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협업...돌봄이웃 집수리 지원

광주시 동구 총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사회문제 불거진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21일 광주시 동구 총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민간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 중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광주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회원 10여 명이 함께 동참했다.

이들은 홀로사는 노인 주거지의 오래된 벽지·장판·싱크대를 교체하고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집안 내·외부 환경을 정비했다.

선종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을겨울 한파를 앞두고 독거 어르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맘이 놓인다"면서 "추후에도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따뜻이 살피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50만원)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